



安 是 煥 / 三星電子(株) 社長 · 本會 非常勤 副會長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발돋움

한해 동안에 15%이상이나 절상한 원화 가치로 인해 가격경쟁력이나 수출경쟁력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으면서도, 對美 무역마찰, 對EC 무역마찰 등은 갈수록 높아져 수출선 및 수입선 다변화, 원가절감과 같은 타개책 마련에 부심해야 하는 등 88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신장을 거듭하여 최초로 총무역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 10월에는 전자분야가 단일업종으로는 최초로 수출 100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총교역액의 24.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각 기업들이 품질관리·생산성 향상, 그리고 수출가 인상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자분야의 신장과 함께 기계류의 수출 100억달러 돌파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기본적인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흔히 21세기는 고도 정보화사회라고 말하며, 우리는 지금도 그 전조를 여러곳에서 보고 있다. 그간 한국의 전자산업이 노동집약·Low tech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거니와, 이제 바야흐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 요즈음 각 전자업체들이 종합전자메이커로서 변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현재 반도체는 1MD 램까지 양산 중이며, 4MD램도 곧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New Media, 컴퓨터 및 주변기기, LAN, VAN, ISDN 등 소위 고도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이 실현 또는 개발중에 있다. 전자제품도 가정용 전자제품 위주에서 산업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가정용도 VTR, CTV, 전자렌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산업용기기, 전자·전기부품 등은 울들어 무려 40~50%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화 절상, 원자재가 상승, 수입규제강화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인건비 상승 등의 내부적 요인 변화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이익의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구조 재편성의 일환으로 크게는 국가산업의 구조적 재편성과도 맥락이 닿는 현상이라 하겠다.

1989년에도 각 기업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말 환율이 580~620 선으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나름대로 세우고 있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한국의 전자공업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內需이 없고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 특히 일본은 고부가제품(대형TV,

캠코더 등)의 기술은 이전을 꺼리고 제품생산을 차별화시키면서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요 부품을 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전자공업은 이런 이유로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미국, EC뿐아니라 호주까지 번지고 있는 보호무역의 장벽은 원화 절상과 함께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동안 쌓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탄력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년도 전자공업의 전망 또한 어둡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다각적이고도 새로운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소재·부품 등의 기초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충,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품 및 생산의 효율화를 통한 수출경쟁력의 확립, 그리고 시장다변화를 통한 무역장벽의 극복, 생산성 향상, 가격 인상, 고품질화를 통한 원화 절상의 극복 등은 앞으로 한국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하이테크 산업의 정착과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